

2017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 회의일시 : 2017. 6. 21(수)
- 심의위원(가나다순) : 류동현, 박만우, 박수진, 윤진섭, 정중호

2017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심의는 총 5인의 심의위원이 참여했다. 미술계의 기획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우수 전시 기획준비 및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전조사, 기획, 리서치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이 사업은 활동 경력 5년 이상의 큐레이터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심의는 기획자의 예술적 역량 및 기획의 명확성(30%), 전시 기획의 예술적 수월성(20%), 전시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3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총 18건의 사전연구 지원을 위한 기획안이 지원되었고, 이 중 6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단체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최소 필요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심의는 심의위원 5명이 각 지원 신청서의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심의 기준에 의거한 채점제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합산 결과에 따른 다득점 순으로 선정작들이 결정되었다. 가나다 순으로 <더블 네거티브>, <베틀, 배틀>, <어노잉 브레이닝>, <장르 알레고리-조각적>, <컴플렉스 개성>, <타임 리얼리티: 단절, 흔적, 망각>이 선정되었는데, 기획안의 독창성, 선명성, 예술성과 함께 사전연구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결과다.

선정된 6건의 기획안은 시의성이 있는 토픽과 시각예술에 대한 새로운 문맥, 시각예술에 대한 새로운 담론 형성을 위한 사전조사 내용 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시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의도는 참신했지만, 구체적인 사전조사 계획이 미흡하거나, 정확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기획안 혹은 전시로 발전하기 어려운 기획안들은 아쉬움을 남겼다. 사업목적에 맞는 충실한 기획안과 전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심도있는 기획안들이 차후의 사업에 더욱 많이 지원될 수 있기를 심의위원 5인은 바란다.

2017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심의위원 일동